

PEOPLE

2025년 3월 6일 목요일



광주비이농협 농협손보 '위더스 사무소' 선정

광주비이농협은 NH농협손해보험의 '위더스(With-Us) 사무소'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위더스(With-Us) 사무소'는 NH농협손해보험이 매년 손해보험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농업인의 건강과 재산보호를 위해 앞장선 우수 농·축협을 선정하며, 성장 가능성과 보험사업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광주비이농협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 박흥식 광주비이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20명이 참석했다.

박흥식 광주비이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보험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과 함께 성장하며 발전하는 농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건보공단 고흥보성지사 휠체어 등 보조기기 복지관 기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는 최근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건강나눔 사랑나눔 보조기기 기증식'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보조기기 무료 대여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작년 말로 해당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보조기기 중 내구연한이 남아 사용가능한 일부 보조기기를 지역사회에 무상양여하기로 했다.

기증식에서는 고흥군노인복지관에 휠체어 2대, 목발 2대를, 고흥군장애인복지관에 휠체어 3대와 보행기 3대를 각각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보조기기는 장애인 및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미에 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해 발전하는 건강보험이 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117@gwangnam.co.kr



함평 나산면 지사협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집중관리

함평군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난방비 지원사업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구당 20만원 씩 총 10가구에 200만원을 지원했다.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제외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가구를 발굴해 중복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신입생 0명→11명... 활기 되찾는 나주북초등학교

도교육청 공동학구제 운영
특색 있는 교육과정 '효과'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총동문화 장학금 전달식도



나주시 청동에 위치한 나주북초는 지난 4일 11명의 신입생을 맞이하는 입학식을 개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내몰렸던 나주북초등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전남도교육청의 공동학구제에 힘입어 학생의 불씨를 되살렸다.

전남 나주시 청동에 위치한 나주북초는 지난 4일 오전 11명의 신입생을 맞이하는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 학교 총동문화는 이날 신입생들에게 입학 축하 장학금을 지급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전교생 51명의 작은 학교인 나주북초는 지난 2023학년도에 입학생이 0명까지 떨어졌으나 2024학년도 7명, 2025학년도에는 11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은 학교가 운영하는 특화된 교육과정 덕분이었다.

특히 △개별 맞춤형 지도를 강화한 소규모 학

급 운영 △독서 토론 및 '나도 작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인문학 중심 교육 △자연친화적 학습 환경을 활용한 생태 교육 △학생 주도의 동아리 활동 및 다모임을 통한 민주적 의사소통 경험 △소프트웨어 코딩 학습과 창의적인 제작 활동 △지역사회 연계 체험 및 해외 역사·문화 탐방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제한적 공동학구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학교 내 취학아동이 부족한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을 특화하면 다른 학교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수를 유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윤희 교장은 "나주북초는 특색 있는 교육

과정으로 적정 규모의 학교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열 총동문화장도 "이번 장학금 전달은 나주북초의 끈끈한 공동체 정신과 후배 양성을 위한 선배들의 따뜻한 지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이달의 새농민상' 부부 선정 고흥농협 신철민 전주경 부부·금성농협 신강호 이수정 부부

농협 전남본부는 3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신철민·전주경(고흥군 고흥읍) 부부, 신강호·이수정(담양군 금성면) 부부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신철민·전주경 부부(윤농농장)는 지난 2007년 귀농해 농업을 시작했으며, 고흥 오이작목의 회원으로 백다지기(백오이) 다수확 출하와 품질 좋은 유자를 생산해 지역 우수농산물을 지켜가고 우리 농산물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영농회장을 맡으며 귀농, 귀촌 농업인들에게 선진영농기술을 홍보 교육하고 있고, 멘토가 되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농업인으로 많은 지역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신강호·이수정 부부(수정농장)는 시설 하우스(딸기, 메론)와 수도작을 재배하고 아울러 한우를 사육하는 복합 영농 선도농가로서 지역사회와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모범 농가다.

수년째 영농회장과 딸기 작목반의 반장을 역임하며 지역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협동과 상생 등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선도 농업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은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선진영농기술 보급, 후계농업인 육성 등 선도농업인으로서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주기를



농협 전남본부는 3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신철민·전주경(고흥) 부부, 신강호·이수정(담양) 부부가 선정됐다.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을 바탕으로 농가소득 증진과 영농과학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선도 농업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경제일자리재단, QR주문 도입 활성화 모색

'#경일이가 간다' 현장간담회

광주경제진흥생업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현성, 이하 광주경제일자리재단) 이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의 부담을 줄이는 QR주문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시연하는 '#경일이가 간다' 1차 현장방문 간담회를 지난 4일 광주 관공구 첨단지구 신라원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현성 광주경제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승재 광주상인연합회 회장, 김상재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회장, 양충호 북구골목형상점가상인연합회 회장, 박필순 광주광역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살림 이사장, 김재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경제일자리재단은 찾아가는 민생현장 소통 프로그램 '#경일이가 간다' 시리즈를 통해 소상공



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키오스크·태블릿 주문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과 월 구독료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경제적인 QR주문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립도서관,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책책빵빵' 시동

해남 시작으로 농산어촌 45곳 순회

전남도립도서관이 독서문화 소외 지역에 종합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이동도서관 '책책빵빵'이 5일 해남 새하늘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7월 15일까지 12개 군, 45곳을 '이야기보따리 할머니'와 함께 찾아가간다.

이동도서관 '책책빵빵'은 농산어촌 등 도서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독서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서 대출·반납은 물론, 책 읽어주는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프로그램과 DVD 영화 상영을 연계해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대출 도서는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도록 각 방면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목록을 선정했다. 1인당 최대 5권을 대출해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할머니가 직접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프로그램은 책을 통해 자연스러운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하고 여성 노년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DVD 영화 상영은 극장을 찾기 힘든 농산어촌 지역 어린이에게 영화 감상 기회를 제공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서구, 자원순환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5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자원순환관리사 역량강화 교육'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



동명 목재문화센터, 관리 위·수탁 협약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5일 구청에서 동명어울림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심성식)과 동명 목재문화센터의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